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33>

JCCT 2023-9-17

‘체험이야기’의 문학적 의의와 문화적 성격 Literary Significance and Cultural Character of ‘Personal Narrative’

김경섭*, 김정래**

Kyung-Seop Kim*, Jeong-Lae Kim**

요약 우리가 문학적 또는 예술적이라고 칭하는 텍스트들의 근원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경험이 상상의 바탕이 되므로 예술적 상상력의 근원은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을 원재료로 하여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행위는 하나의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그것을 이야기로 엮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에 필연적으로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 곧 문학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험이야기는 사실을 이야기로 엮고 형상으로 옮기는 문학적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런 ‘개인의 기억’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인 복수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복수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런 복수의 기억들은 차츰 시대와 정세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사회·문화적인 검열을 거쳐 점점 사회적으로 고착된 어떤 경향을 띤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개개인이 자신이 겪은 것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에 자신의 기억을 짜맞추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사실에 가까운 논픽션 콘텐츠를 양산하고 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 콘텐츠로 드러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 다루는 ‘체험이야기’는 우리의 문화 내의 논픽션 콘텐츠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어 : 체험이야기, 문학, 문화, 사실과 허구, 약호, 제한된 코드, 정교한 코드, 구술성과 기술성, 개인의 기억, 집단의 기억

Abstract The origin of texts we refer to as literary or artistic may be imagination, but many are based on experiences. In fact, experiences can be the source of artistic imagination since imagination often builds upon experiences. Therefore, the act of verbalizing human experiences using them as raw material can become a great form of art. Transforming past experiences into stories and infusing them with vitality inevitably requires a creative process of reconstruction, which is essentially a literary process. As such, 'Personal Narrative' holds significance as a literary process that weaves facts into stories and shapes them into forms.

Individual experiences are stored as personal memories, and these 'personal memories' continuously generate stories. Collections of individual stories are stored as multiple memories, which gradually form 'collective memories' with distinct social and cultural inclinations through the passage of time and invisible yet potent societal and cultural censorship.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individuals may tend to align their own memories with the inclinations of collective memory rather than simply recalling what they personally experienced. In the context of actual history, personal memories and collective memorie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roducing non-fictional content close to reality and sometimes manifesting as fiction content enriched with imagination. 'Personal Narrative' holds a significant genre as one genre of non-fiction content within our culture.

Key Words : Personal Narrative, Literature, Culture, Nonfiction and Fiction, Code, Restricted Code, Elaborated Code, Orality and Literacy, Personal Memory, Collective Memory

*중신회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저자)

**중신회원,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Received: July 27, 2023 / Revised: August 20,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jlkim@eulji.ac.kr

Dept. Biomedical Engineering, Eulji University, Korea

1. 서론

문학은 일반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한다. 문학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 허구의 의미에 대해 장황하게 따질 필요는 없겠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문학적'인 서사를 '허구적'인 언어 예술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과 '허구'를 간단한 이분법으로 나누어 기계적인 구별을 해 왔다는 것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특정 텍스트가 어떤 이에게는 '사실'로 읽히겠지만 또 다른 어떤이에게는 '허구'로 읽히는 것은 그만큼 사실과 허구의 구분 자체가 상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1].

문학 일반에서 이러한 인식이 이어져 온 결과 말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에서도 이른바 문학적인 것을 허구 일반도로 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동안 구비문학 연구는 설화 연구를 근간으로 '허구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구비문학의 영역에 설화 이외의 문학적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될 수 있었는데, 생애담의 일종인 시집살이담이나 경험담의 일종인 전쟁담은 실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연자에 의해 설화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인 구연 선호도를 보이는 영역이다 [2].

사실 '전통적인 서사' 장르라는 것은 학술적인 범주로서, 그 역사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전통사회'의 개념만큼이나 모호한 것이다 [3].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영역을 허구적 서사체로 한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구비문학의 범주를 축소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에게 신화나 전설 못지않게 생애담 혹은 경험담과 같은 '체험 이야기(Personal Narrative)'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설화가 현격히 퇴조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면서 구비문학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구비담론이 오늘날에도 연행되며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화가 '허구'를 매개로 삶을 객관적 대상으로 표현하고 인식하는 이야기 양식이라면 '사실'의 주관적 반영으로서 체험이야기는 대상에 보다 밀착하여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이야기 양식이다. 양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이야기관에서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화와 함께 이야기관을 형성하는 주요 항목이면서도 최근에 와서야 그 실체에 대한 학문적 성

과가 논의되고 있는[4][5][6][7][8] 체험이야기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문학적이라고 부르거나 예술적이라고 칭하는 텍스트들의 근원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경험은 상상의 바탕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예술적 상상력의 근원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을 원재료로 하여 그 매체가 시각적인 것인가, 음악적인 것인가의 차별에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경험을 말로 구술하는 것 역시 하나의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훌륭하게 구연하는 구술연행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언어예술(Verbal art)이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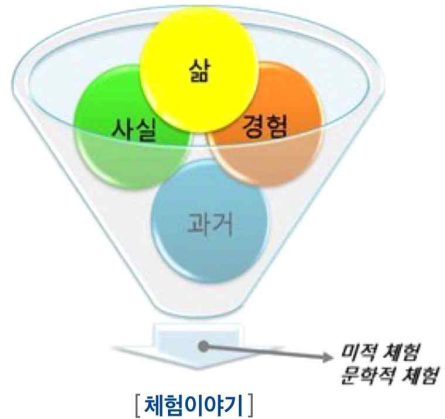


그림 1. 체험이야기의 생성

Figure 1. The Creation of Personal Narrative

체험이야기를 문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을 허구와 결부시키는 전통적인 태도 때문이다. 허구와 상상이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지만, 문학에서의 허구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이야기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인가 하는 것은 소재나 모티프 차원의 문제이지 문학성의 문제가 될 수는 없기에, 체험이야기가 사실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현장에서 체험이야기 구연을 경청해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상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제보자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구연 과정에서 능숙한 화자의 형상화 능력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문학행위로 인정해야 할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II. 체험이야기의 정의(定義)와 의의(意義)

구비문학은 ‘단지 거짓말일 뿐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나 ‘화자와 청자 간에 사실로 동의된 것’이나 동일한 무계를 지닌 언어 예술로 다루어야 한다고 언어민속의 대가인 리처드 바우만은 주장한다 [10]. 말로 전승되는 구술담화들의 이런 특성들을 감안하면 생애담도 신화나 전설, 민담과 더불어 구비문학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허구를 문학성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일종의 강박으로 인해, 근대 이후 소설중심으로 형성된 허구 위주의 문학성에 대한 과도한 경사가 구비문학에서의 생애담과 같은 체험이야기의 연구를 위축시킨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구비문학 자료집에 생애담 종류는 ‘실수로’ 수록된 단편적인 자료들이 간간히 보일 뿐이다 [11].

체험이야기를 구연하는 행위는 과거에 방점을 두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행위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체험이야기 구연은 개인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성찰하는 문학적 수사의 한 양식이자 중요한 문화적 행위인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총체가 아니며 그것을 이야기로 엮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에 필연적으로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 곧 문학적 허구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험이야기 구연 과정은 사실을 이야기로 엮고 형상으로 옮기는 문학적 과정으로서, 그를 통해 삶의 극절 및 그에 얽힌 정서적 반응이 생생히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체험이야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학적·생활적 의의를 함축하게 된다.

체험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야기 화자본인의 수명을 넘어서 지속되기 어렵다. 체험이야기는 가족이나 친밀한 벗들의 레퍼토리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 이유는 체험이야기가 개인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통 1인칭으로 구술되며 그 내용은 비전승적이기 쉽다. 체험이야기의 비전승적 특징 때문에 그것이 언어민속 장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르 속에 반영된 가치나 태도들은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12]. 또 민속적인 것은 반드시 전승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민속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속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 하며, 민속은 반드시 과거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러므로 체험이야기는 지금 시대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언어민속이자 구비문학인 것이다. 다음으로 체험이야기에 대한 학술적 용어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일단 명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험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애사(史) 혹은 체험담(譚)’이라는 용어 문제이다. 여기서 사(史)라는 용어가 주는 ‘사실’, ‘증거’ 등의 엄격함을 상기하고, 좀더 자유롭게 삶과 인생을 구술하는 실제 구연 현장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체험이야기’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체험담’으로 명명하면 그 범위가 한 개인의 일생을 총괄한다는 의미로 너무 광범위한 영역을 지칭하고, ‘담(譚)’이라는 한자가 주는 정적(靜的)인 측면도 거슬린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비교적 작은 단위의 세세한 경험 이야기를 포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험이야기’가 역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의 연구에서도 체험이야기류의 구술 텍스트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어서 오랫동안 학술적인 연구 주제로 간주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개인서사(Personal Narrative)’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용어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개인서사라 하면 사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개인이라는 모든 이야기들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말하는 모든 발화들이 포괄되어, 화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역사나 사회에 대한 사적인 발언들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 용어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다는 본래의 개념을 훨씬 뛰어 넘는 영역을 지칭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구연하는 이야기를 우리말로 ‘개인서사’라 번역하여 칭하는 것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본 논의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술하는 서사형태를 ‘체험이야기’으로 지칭하고 서구의 연구를 염두에 두어 영문으로는 ‘Personal Narrative’로 병기하기로 한다.

간혹 연구자에 따라서는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 보인다. 그런데 이 용어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지칭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련의 담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체험이야기가 자기서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기서사라는 용어가 체험이야기를 포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문학치료학 등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기서사’와 겹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 ‘일상경험담’, ‘경험담’ 등의 용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상경험담’이나 ‘경험담’이라는 용어에서 일단 ‘담(譚)’이라는 한자 단어는 정적인 면이 강하다. 반면 순수리말인 ‘이야기’는 구연 상황의 동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경험담’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인생에 대해 구술할 수 있는 영역을 포괄하는 측면이 있어 자기 자신의 사적(私的)인 이야기를 뜻하는 용어로는 역시 ‘체험이야기’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현지조사를 나가 보면 설화가 잘 구연되지 않는 이야기관에서 다양한 체험이야기가 생생히 구연되는 모습과 만나곤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국면이 있기 마련이다. 체험이야기는 여러 영역에 걸쳐 이제껏 소외되어 왔던 다원적인 요소들이 포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여러 영역들이 체험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험이야기의 학술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 연구에만 치중되어 그간 소외되었던 체험, 경험의 구비 서사를 다룬다는 측면이 있다. 허구와는 다른 경험의 측면이 문학에서 다루어져야 할 당위는 앞서 충분히 언급된 바 있다. 둘째, 신화, 전설, 민담을 근간으로 한 설화 연구가 다분히 적층적인 집단의 기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체험이야기는 그야말로 개인의 기억 속의 소재들이 형상화되어 구연되는 측면을 다루게 된다. 셋째, 구비문학 일반이 지닌 ‘과거지학’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해 현재의 시점에서 경험을 반추하고 과거를 성찰하는 ‘현재지학’으로서 구비문학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기존의 구비문학에 다른 설화(신화, 전설, 민담) 일반은 아무래도 지나간 시대의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체험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개인의 세계관과 철학이 투영된다

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마지막으로 체험이야기는 기술(記述) 텍스트 중심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구술(口述) 텍스트의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문자에 입각해 형성되는 각종 문화 콘텐츠와는 달리 체험이야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구축되는 콘텐츠이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말의 일회성과 즉흥성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과 다분히 닮아 있다. 구술성 일반은 디지털 세상에서 또다시 점검할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구술적 요소로 형성된 콘텐츠를 새삼 논의해야 할 이유이다.

이렇듯 체험이야기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측면과 새로운 연구의 의의를 논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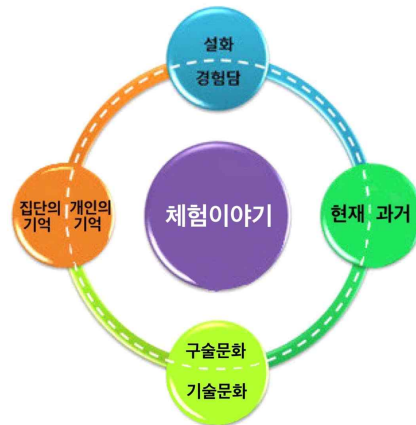


그림 2. 체험이야기의 의의
Figure 2. The Signification of Personal Narrative

III. 체험이야기의 문화적 성격

이야기하기와 같은 구술 연행은 문화적으로 규정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구체적인 연행 장면들이 시공간에 맞춰 준비되고, 다음으로 연행에 어울리는 여러 형식들과 준비물을 구성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다양한 약호들이 연행의 세부 내용 곳곳에 사용된다 [13].

이러한 표현매체들이 문화의 양식·초점·관심을 재현할 때, 이 매체들은 표현성의 기본 요소들을 미적 형식으로 조직하고 이 형식을 통해서 사건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표현 매체들은 그것들의 성격에 의해 코드로 이해될 수 있다. '코드'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유용한 기호체계, 즉 모든 인간 감각이 사용되는 의사소통에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석에 관여하는 기호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드는 '기호들이 조직화되는 체계'로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한 법칙들이기에 우리말로 '약호(略號)'로 명명된다. 코드의 개념에 대해 로트만은 세계를 모형화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바르트는 법칙과 창조성의 영원한 변증법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드란 변환을 향하고, 변환을 허용하는 체계이며, 추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로트만은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코드라 언급하는데, 그만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의 코드는 소통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규칙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 코드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14].

우선 코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페리다임의 두 유형—디지털 *digital* 코드와 아날로그 *analogue* 코드—중 체험이야기는 언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절적인 디지털 코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코드의 특성으로 분절을 들 수 있는데 언어는 기표와 기의를 분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드이며, 언어로 구성된 체험이야기는 여기에 속한다. 디지털 코드는 코드의 구성 원리를 알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코드에 대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모국어와 외국어의 소통 상의 차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반면 아날로그 코드는 지속적이며 비분리적이다. 아날로그 코드의 대표적인 '자연'은 따라서 범주화시키거나 이해하기 어렵기에, 우리는 그 위에 디지털 코드의 차이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춤이나 무용 같은 비언어적 예술도 아날로그 코드에 속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코식으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코드는 강한 코드이고 아날로그 코드는 약한 코드이다. 이런 거시적인 코드의 분류에서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비문학적 코드와 기술문학적 코드는 서로 구별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코드는 단지 자료를 이해하고 조직화 하기 위한 체

계만은 아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상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체험이야기와 같이 말로 전송되는 구술(口術)문학과 소설과 같이 문자로 창작되는 기술(記述)문학을 가장 잘 코드화하는 개념은 '제한된 *restricted* 코드'와 '정교한 *elaborated* 코드'의 구별이다. 이 두 코드 개념은 원래 사회 언어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개념으로 계급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의 특성들을 추출하여 추론한 것이다. 제한된 코드와 정교한 코드의 개념을 중심으로 체험이야기의 문화적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된 코드는 정교한 코드보다 덜 복잡하고 보다 단순하다. 그것은 보다 적은 어휘와 단순한 구문을 가진다. 이런 면은 체험이야기의 언어적 분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설명이 된다. 언어적 연행은 현장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만큼 단순성과 반복성을 중심으로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성격이 체험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연행에서 코드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체험이야기는 제한된 코드의 전형인 셈이다.

둘째, 제한된 코드는 구두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정교한 코드와 변별된다. 정교한 코드는 문자로 적힘으로써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메시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령 구호나 언어적 신호들은 제한된 코드의 다른 양식들인 것이다. 따라서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연 연행의 코드는 제한된 코드의 성격을 띤다.

셋째, 제한된 코드는 리턴던시의 경향이 강하고, 정교화된 코드는 엔트로피가 강하다. 그만큼 제한된 코드는 예측적이고 관습적이어서 저급 정보를 다루게 되며, 정교화된 코드는 예측이 어려운 고급 정보를 다루게 된다.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비문학은 대부분이 공동체의 관습이나 역사, 경험과 관련이 있기에 그만큼 정보성이 낮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바탕이 되고, 남들이 잘 알아듣는 방식내에서 구연되기에 리턴던시의 경향이 강한 것이다. 반면 정보성이 낮다는 것은 체험이야기의 레퍼토리들이 전송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기술문학은 리턴던시가 높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비문학보다는 복잡한 정보를 다루게 되고 전달 방식과 그 언어 역시 새로운 효과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정교화된 코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제한된 코드는 사회적 관련을 강조하고 화자와 집단사이의 유사성을 표현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제한된 코드는 공통의 가정, 공유된 흥미, 고유된 경험, 동일성 등에 의존한다. 이는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비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정교한 코드는 지역적 공통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의도적으로 목적한 의미의 정교화를 가능케하는 임의적 코드에 의존한다는 점에 염두에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역시나 체험이야기는 제한된 코드의 전형인 셈이다.

다섯째, 또 하나의 중요한 변별점은 체험이야기를 구성하는 제한된 코드가 구체적인 것, 지금, 여기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비문학의 연행적 특징을 드러내는 코드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정교한 코드는 추상성·부재성과 관련있다. 이는 청자가 항상 부재의 상태에 있는 기술(記述) 문학의 코드를 드러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술성과 기술성의 차이를 논할 때 구술성의 현장성이 기술성의 현장부재성과 비교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여섯째, 제한된 코드는 문화적 경험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교화된 코드는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의존한다. 정교한 코드는 배워야만 하는 것인데, 이는 셋째 항목에서 언급된 코드와 관련이 있다. 정보성의 높과 낮은 비정규적인 학습과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교육의 구별을 낳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구비문학의 코드와 기술문학의 코드와 관련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체험이야기와 같이 구연 상황에서 구축되는 제한적 코드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설화나 다양한 구비 전승물들은 제한된 코드에 가깝고, 문자에 의한 본격적인 소설은 정교한 코드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정교한 코드가 제한된 코드보다 나은 것은 아니며, 그들은 서로 변별적인 것들로서 다른 기능을 문화안에서 수행할 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고, 공동체나 집단의 구성원이다. 공동체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은 현 시대라는 시간적 지표 속에 묶여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담론의 측면을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집단 내의 의사소통은 위에서 언급한 제한된 코드와 정교한 코드가 혼합되어 있는 양상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연한 말이지만, 제한된 코드가 항상 이전

시대의 담론과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정교한 코드가 전통 시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문제는 체험이야기와 같은 전통적 구비담론이 현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연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IV. 고찰

이야기는 화자가 홀로 구연하게 되지만 그것은 청중을 통해 전파되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인간은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삶에 자신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의 이러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체험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호모 나랜스(Homo Narrans(이야기하는 인간))'는 각종 정보를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는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서 [15], 체험이야기는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용어인 것이다. 반면 개개인의 체험이 곧바로 개개인의 이야기로 전환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런 '개인의 기억'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인 복수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복수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런 복수의 기억들은 차츰 시대와 정세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사회·문화적인 검열을 거쳐 점점 사회적으로 고착된 어떤 경향을 띤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객관적인 사실의 집합체로 형성된 '역사'를 사이에 두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은 이렇듯 서로 영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집단의 기억'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개념으로 인간 사회에 형성되는 사상과 담론들이란 본질적으로 기억이며, 기억의 내용들을 '집단 기억'이라고 명명한 것과 관련된다. 이 집단의 기억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모든 동력의 틀이며, 불완전한 개인의 기억은 사회구성원들이 형성한 집단의 기억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16] 이를 염두에 둔다면 개개인의 체험이야기는 개인의 기억에도 의존하지만 집단의 기억에도 다분히 의존하고 할 수 있다.

V. 결론

개개인이 구연하는 체험이야기는 사회적, 집단적으로 공인된 집단의 의식에 좌우되어 자신이 진짜 겪은 것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에 자신의 기억을 짜맞추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집단 기억의 경향성은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기억 사이에 침투해 양자를 갈라놓는다. 내가 체험한 대로 나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지만 집단 기억의 경향성이 인도하는 대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의 역사를 가운데 두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은 서로 소통하면서 사실에 가까운 논픽션 콘텐츠를 양산시키고 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 콘텐츠로 드러나기도 한다. 여기서 주로 다룬 체험이야기는 우리의 문화 내에서 논픽션 콘텐츠 중의 한 장르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야기 구연 현장에서는 개인의 기억이 아닌 집단의 기억에 근거해, 기억의 경향성에 자신의 체험을 대입하는 수많은 화자들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역사에 중대한 시사점을 지닌 수많은 체험들이 개인의 기억, 역사, 집단의 기억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전파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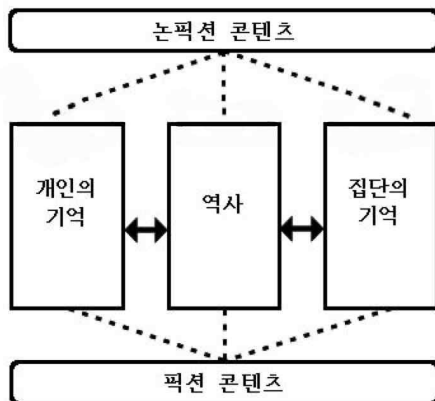


그림 3. 기억, 역사, 콘텐츠의 상관관계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Memory, History and Contents

물론 우리 자신이 집단의 기억에 의존한 나머지 개인

의 기억을 송두리째 버려두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집단의 기억을 개인이 신경쓰고 염두에 두는 것은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므로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간주할 필요도 없다. 다만, 개개인이 ‘개인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체험이야기와 같은 구연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말로 형상화하면서, 개인의 상흔을 치유하는 담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다뤄야 할 과제이다.

References

- [1] S.H. Han, “Literary Boundaries and Recognition of Experience story –Focused on ‘Doggaebi stories’–”, *Journal of Namdo Folklore*, Society of Namdo Folklore, Vol.40, pp.193-2319, 2020.
- [2] K.S. Kim, “Significance and Oral Narrative Aspects on Sijipsali-Narrative as Women’s Life-story”, *Journal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The Society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Vol.48, pp.5-35, 2012.
- [3] H.S. Chun, “An Analysis of Oral-Narrative and Meaning of Women’s Stories”, *Journal of Korean Oral Literature*,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Vol.4, pp.71-87, 1997.
- [4] H.S. Chun, “A Study on Rural Women’s Life Stories: the themes and the women’s perception of their own Lives”, *Journal of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Vol.2,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pp.227-267, 2001.
- [5] S.N. Kim, “Methodology of Feminist Oral History”, *Journal of the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Vol.35, No.2,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pp.31-64, 2002.
- [6] Y.S. Kim, “The discourse Strategy of ‘Life Stories’”,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Vol.19,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pp.279-300, 2009.
- [7] J.K. Kim, “A Study on the Oral poetics of Self narration”,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 44, The Association Of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pp.177-207, 2009.
- [8] J.K. Kim, “A study on ways of signifying self-Life showed in self narrative”, *Journal of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Vol 21,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al Woman

- Literature, pp.291-318, 2010.
- [9] K.S. Kim, "A Study on the Oral Characteristics in Personal Narrative Storytell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4, pp.143-150, 2022.
- [10]Richard Bauman, *Story·Performance and Event :Contextual studies of oral narrative*, Cambridge Univ. Press, pp. 9-11, 1986.
- [11]D.H. Shin, "A Study of the Literary Charater of Personal-Narrative", *Journal of Korean Oral Literature*,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Vol.4, pp.157-182, 1997.
- [12]Sandra Dolby Stahl, *Literary Folkloristics and Personal Narrative*, Indiana Univ. Press, pp. 12~13, 1989.
- [13]Beverly J. Stoeltje & Richard Bauman, "The Semiotics of Folkloric Performance", *The Semiotic Web*, edited by Thomas A. Sebeok and Jean Umike-Sebeok, Mouton de Gunyter, p. 585-587, 1987.
- [14]John Fiske,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1990.
- [15]W.O. Choi, "A Study on the Proces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Making Stories from Women's Life Stories", *Journal of Korean Oral Literature*,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Vol.32, pp. 37-72, 2011.
- [16]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89, 1992.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148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A2A01061483)